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중점 지방재정·추진방향 등 논의

순창군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노홍래 부군수 주재로 상반기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재정집행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관계 부서장과 담당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신속집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부군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5천만 원이상 사업을 주요 재정집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사업의 집행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관련 실무 부서장과 담당계장들이 직접 사업별 재정 집행 목표를 설정해 실효성 있는 보고회가 되도록 추진했다.

또한 노 부군수는 이날 일자리 창출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강조하며 주문했다.

군은 앞으로도 주요 사업별 추진 실적을 상시 점검해 효율적인 재정집행

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현안사업과 공약사업 또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 신속집행제도 활용지침에 따라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계약심사와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관련제도를 활용해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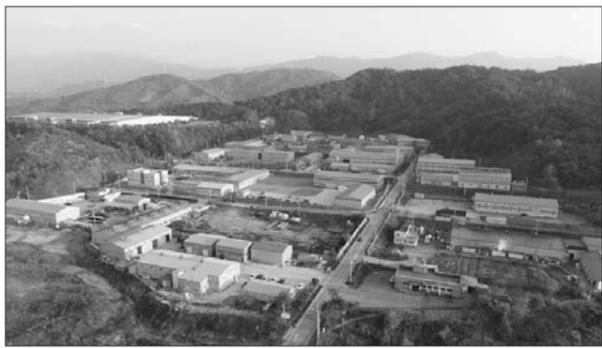
노홍래 순창군 부군수는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최선을 노력할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최우수기관 선정

남원시가 전북도에서 실시한 '2018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매년 전라북도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한해 동안 전북도 14개 시군이 도내기업과 투자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환경개선부터 금융지원을 비롯, 제품 판로지원까지 다양한 시책 추진실적을 취합해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동향조사 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기업 멘토링제와 후견인제를 통해 기업애로 해소에 나섰으며,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등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시책발굴과 규제개선에 노력하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남원시가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사진은 남원 산업단지 전경.

한편 이환주 시장은 "국가적으로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인 현실에서 남원시 기업들이 당당한 성과를 내는 데는 힘든 상황이지

만 작은 것이라도 노력하는 우공이산의 자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형우 임실부군수, 현장행정 바쁜 행보 이어가

김형우 임실 부군수가 취임 후 현장 행정에 주력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부임한 김 부군수는 부서별 업무보고에 이어 11일과 12일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에 나섰다.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빙기 맞이 현장점검과 신속한 군정현황 파악에 적극 나서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에서 김형우 부군수는 주요 사업장 및 운영 시설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업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사업의 효

율적인 추진을 위한 꼼꼼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첫날인 11일에는 옥정호 권역을 시작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을 시가지 주요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12일에는 성수산과 농식품융복합 중심지인 성수면 오우리, 오수 의견관광지 등을 방문해 군 주요사업에 대해 세심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우 부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접 발로 뛰는 현장행



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요사업장을 수시로 찾아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공설시장 야시장 개장

남원시 야시장 공모사업 최종 선정 '남원 월매야시장'

남원시는 지역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공설시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 야시장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남원 월매야시장'을 4월에 개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원을 대표하는 특산품과 향토자원을 결합한 먹거리인 월매로(월매떡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참여를 통한 세계음식을 제공하는 몽통로(세계음식, 트랜드음식), 남원수공예품, 월매야시장 캐릭터상품 및 기념품을 제공

하는 춘향로(수공예품, 기념품) 등 3곳의 시장특화거리를 조성, 중앙년층 고객 유입은 물론 다문화가족과 연계한 국가별 대표적 세계음식 판매를 통해 젊은층 고객 유입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시장을 통해 월매야시장이 남원시의 새로운 야간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비상인들과 전통시장이 상생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전 읍면사무소서

임실군이 군민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정보 서비스 홍보를 전 읍면 사무소에서 시행한다.

12일 군은 주민들의 생활 속 민원처리 불편을 덜기 위해 47종의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홍보를 실시 중이다.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생활정보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실군의 농촌지역 특성상 인터넷 기반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때

문에 군은 도서·산간 주민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IT취약 계층을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 민 군수는 "생활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아 읍면에서 관련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적극 추진

임실군이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를 적극 추진한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사업은 농촌의 일손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다.

12일 군에 따르면 토양개량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총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2,780톤을 공동살포할 계획이다. 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을 개량, 지력을 유지하고 보전해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조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행정, 농업기술센터, 농업이 참여하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날 29일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다.

심 민 군수는 "농촌사회가 고령화되고,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해서 토양개량제를 살포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임실군 전 지역에 공동살포를 추진하여 농지를 비옥하게 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확대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토종 미꾸리 양식기술 교육 추진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우)에서는 남원산 토종 미꾸리 생산량 증대를 위해 토종 미꾸리 양식기술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은 기존 관내 미꾸리 생산농가는 물론 귀농귀촌자 혹은 미꾸리 양식에 관심있는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약 20명정도 선발 진행할 예정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시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그동안 토종 미꾸리를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매진해 왔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그동안 시험연구를 통해 축적된 양식기술을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플라(Bioflac)기법을 도입한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과 어미 선별, 인공수정, 치어육성 기술등 미꾸리 부화부터 성어 생산까지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선진 민간 양식장 등 현장 견학을 실시해 전문을 넓히고 발전방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며, 특히 센터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 시험수조를 활용해 철저히 실습위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는 교육생 모집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남원산 미꾸리 대량생산을 실현할 전문 양식농가를 육성, 수료자에게는 내수면 양식단지 입주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정책순가꾸기 사업 추진

남원시는 대대적인 정책순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14억원이 투입될 사업대상은 890ha의 인공조립지나 천연림에 대하여 조립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 나무의 나이에 맞는 사업설계·시공으로 산림자원의 가치증진 산림재해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정책순가꾸기사업을 통해 산림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재해예방, 고급목재생산,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 개선 등 본 사업 참여근로자 연 6,000여명의 고용효과로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